

#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일학년(6세) 117명, 사학년(10세) 117명, 중학생 138명, 고등학생 138명, 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암묵적 연합검사(IAT)와 명시적 선호도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과 대조하여 각 인종(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를 5(연령) x 2(성별) x 3(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성별효과와 나타나지 않고 연령변수가 유의하였다. 모든 연령에 걸쳐 내집단 선호경향은 암묵적/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지속되었다. 반면에 외집단에 대한 선호 및 편견적 태도는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 연령과 인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발달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이론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태도발달, 명시적, 암묵적, 태도, 한국인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근래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생 수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대상의 자녀교육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10명 중 2명꼴로 외모 차이로 인해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영달,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내집단 선호경향

이 매우 강했으며 외집단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집단이더라도 서구인은 선호했으나 흑인과 동남아인은 비선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노경란, 방희정, 2008). 이는 우리 사회가 대학생층에서조차 인종에 대해 매우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단일 민족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인식 틀을 넘어서서 자문화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권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달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시키는 다문화사회(Santrock, 2004)로의 성숙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 편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편견적 태도와 갈등을 지양하면서, 주류사회 집단이 주도적으로 상호 수용적 노력을 기울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Berry, 2001). 이 점에서 한국인들이 실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생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종 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대해 어떤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발달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인종에 대한 태도발달이론

인종에 대한 연구들에서 최근 지배적인 흐름으로 사회인지적 접근방법(About, 1988)과 함께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과 자기범주화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을 통합시킨 접근법을 들 수 있다.

사회 인지적 접근이론에서는 태도를 인지 발달적 변화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발달 과정에서 편견은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Doyle, Beaudet 와 About(1988)에 따르면, 인종적인 선호와 편견은 문화적으로 우세한 집단의 아동인 경우에 4세부터 나타나서 5-7세에 가장 절정을 이루다가 9세가 지나 조작적 사고가 획득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내집단(in-group) 선호와 외집단(out-group) 편견이 점차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접근에서는 인종에 대한 선호를 자기범주화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과의 동일시 과정의 함수

로 본다. 여기서 편견은 자존감 증진을 위해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동기적 요인과 관련된다(Nesdale, 2000). 즉 사회인지적 관점과는 달리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인종에 대한 선호가 4세부터 발달해서 인종에 대한 자각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About(1988)의 주장과는 달리 내집단 선호와 편견이 연령 발달과 함께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7-12세 사이의 아동들의 경우 내집단 선호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전 연구에서 7세 이후 다수집단 아동들이 내집단 선호가 감소한다는 결과들은 측정평가가 직접적이어서 사회 선호도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덜 직접적인 절차를 사용한 연구 결과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으며 보존(conservation) 개념을 이해하는 아동들에게서도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Vaughan, 1987).

현재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일관성 있는 일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인지이론이 인지발달과 인종태도의 발달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이론은 인종태도와 관련하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Lo Coco, Inguglia & Pace, 2005).

###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발달이론

태도의 발달은 두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명시적 태도가 의식적이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데 반해 암묵적 태도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의식적인 자각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통제가 어려운

강력한 태도이다(Aronson, Wilson, & Akert, 2005). 이 같은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는 행동적 수준(Dovidio, Kawakami & Gaertnerz 2002)에서 뿐만 아니라, 신경계 수준에서 구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Phelps, et al, 2000; Cunningham, 2004; Olson, Goffin, & Haynes, 2007)

Baron과 Banaji(2006)는 암묵적인 태도의 기원과 발달을 알아보고자 성인용 암묵적 연합검사를 토대로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를 개발하여 백인 아동 6세, 10세 및 성인에게 암묵적 태도검사와 명시적 태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세의 어린 아동에게서도 암묵적으로 백인을 선호하는 강한 내집단 선호와 흑인을 비선호하는 편향(bias)이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태도에서도 같은 편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10세 아동과 성인의 경우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10세 아동과 성인의 경우 암묵적으로는 같은 정도의 인종 편견을 보였으나 자기보고식 인종에 대한 태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덜 편견적으로 되었으며, 특히 성인에게서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명시적인 태도는 점점 더 평등주의적으로 되었으나 암묵적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Baron과 Banaji(2006)는 10세를 기점으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와 명시적인 태도의 평균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Dunham, Baron과 Banaji(2006)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6, 10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의 발달을 연구하여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인종과의 접촉이나 노출이 매우 적은 일본인 집단을 대상으로 내집단에 대한 태도와 두 종류의 외집단

(미국 백인인 경우는 일본인과 흑인, 일본인의 경우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양 집단에서 모두 내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선호도는 초기부터 있었고 이러한 편견적 태도는 각 연령마다 안정적이었다. 두 집단 간에 내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내집단 선호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적 인지의 측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적 태도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는 그 집단의 지위에 대한 지식이 획득됨에 따라서 형성되며, 그 집단의 문화적인 지위(cultural prestige)가 암묵적 태도를 조절한다고 제안하였다.

Dunham, Baron과 Banaji(2008)는 내집단 선호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다수 집단(백인)의 3세, 6세, 10세, 성인 간에 암묵적 연합검사에서의 효과크기(D점수)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암묵적 태도는 발달적으로 안정된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Dunham 등(2008)은 암묵적 태도가 서서히 발달해 간다는 서행 학습 모델(slow learning model)을 반박하였으며, 사회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생애 초기에 나타나서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이른 시기에 외집단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점을 내재화시키며, 사회적 지위나 힘과 위계를 일찍부터 내재화한다고 제안하였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수집단인 경우 5-6세에 이미 암묵적으로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어 성인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며, 10세 전후에는 인종에 대해 명시적 태도와 암

목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종 범주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내외집단의 패권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인 초등학생(Williams & Morland, 1976)부터 중고등학생 시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를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의 측정방법

최근에는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회선호도와 같은 규범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측정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고안하여 대상(기억 속에 있는 개념들)의 정신적 표상들 간에 자동적인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IAT는 전통적인 명시적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차별과 같은 행동을 더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IAT 측정방법은 두 범주 과제에서 수행속도를 계산하여(IAT 효과로 불리기도 함), 반응들의 연합이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날수록, 반응이 더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해석한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명시적 선호도검사는 암묵적으로 측정한 결과들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이 검사는 두 집단 중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계산하여 암묵적 태도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한다(Dunham, Baron, & Banaji, 2006).

###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 변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인종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암묵적인 태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교 1학년 아동(만 6세),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다.

#### 연구 문제

1. 내집단(한국인)과 대비하여 각 인종(백인/흑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한국인의 암묵적 태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2. 내집단(한국인)과 대비하여 각 인종(백인/흑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3. 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관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서울에 소재한 E초등학교의 1학년(만 6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과 4학년(만 10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이었으며, 중학생은 경기도에 소재한 M중학교 1, 2학년 138명(남: 70명, 여: 68명), 서울 소재한 H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67명, K여자고등학교 1, 2학년 71명으로, 모두 정규 컴퓨터 실습시간에

실시되었다. 아울러 성인은 서울 소재한 S대학교 122명(남: 50명, 여: 72명)이었으며, 참여 학생은 일반심리학과 아동발달심리학 강의시간에 실험실습의 일부로 참여하였다.

## 측정도구

###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암묵적 연합검사(IAT)는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의 총 3세트이다. 각 IAT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참가자마다 3세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프로그램화된 시행횟수의 절반으로 축소시켜 실시하였다. 각 IAT 세트 내에서는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실험참가자별로 역군형화 되어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예비시행으로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X' 표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을 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묵적 연합검사는 표적 자극으로 아동의 칼라사진을 각 인종마다(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남녀별로 각각 3장씩 사용하였다. 실시 이전에 대학원생 20명에게 사진자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감도가 크게 다른 사진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인종집단 간의 호감도가 유사하도록 하였다. 속성자극으로 긍정개념(기쁨, 사랑, 즐거움, 행복, 멋진, 평화로운)과 부정개념(짜증, 미움, 화난, 상처, 무서운, 역겨운)의 단어자극을 사용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자판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분석대상은 최초의 조합과제

(양립할 수 있는 과제)와 역으로 된 조합과제(양립할 수 없는 과제) 간에 평균 잠재반응시간의 차이가 종속변인이 되며 반응시간이 길수록 인지적인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 명시적 선호도 검사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둘 씩 짝지워 만든 사진첩을 실험참가자에게 보여주면서, 실험참가자에게 “누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에 체크하게 한다.

## 절차

실험참가자가 컴퓨터 과제에 익숙하도록 먼저 연습용 과제인 간략형 흑인-동남아인 IAT를 수행하였다. 각 실험참가자마다 암묵적 연합검사를 총 3세트씩(백인-한국인, 흑인-한국인, 동남아인-한국인 IAT) 수행하였으며, IAT검사를 마친 후에는 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속성자극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 전 PPT를 통해 속성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주 실험자와 함께 읽어서 숙달토록 하였다. 컴퓨터 키보드는 여러 색상의 스티커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실험자는 교실 앞에서 PPT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6내지 7명의 보조연구자가 각각 5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담당하여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제에 익숙하도록 IAT를 실시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제작된 간략형 흑인-동남아 IAT를 수행하였다.

## 분석

첫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산출된 결과처리 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초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 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값, 즉,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예를 들어, 백인-한국인 IAT에서 산출된 백인선호 도 D값이 0보다 클수록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 음을 나타내며, D값이 0이하이면 백인보다 한국인 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산출된 3가지 D점수(IAT효과크기) 즉, 백인선호 도 D점수, 흑인선호도 D점수, 동남아인선호도 D점 수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 자의 연령에 따라 한국인과 대비된 백/흑/동남아인 인종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5 (연령) x 2 (성별) x 3 (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둘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되도록 실시된 명시적 선호도검사에서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계산한 뒤,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해보기 위해서 각 점수가 0점 이상이면 백/흑/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0점 이하이면 한국인 선 호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산출된 3종류의 명시적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해서, 5 (연령) x 2 (성 별) x 3 (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 결 과

###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른 암묵적 태도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라 암묵적 태도에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변인인

연령, 성별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의 3원 혼합설계 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sphericity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먼저 집단 내 변인인 인종에 따른 암묵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12)=18.40, p<.001$ . 또한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연령에 따른 암묵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F(8, 1026)=3.76, p<.01$ . 그러나 인종 과 집단 간 변인인 성별에 따른 암묵적 태도 종속 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F(2, 512)=1.01, p>.05$ . 아울러 인종과 연령,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암묵적 태도 종속변 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F(8, 1026)=0.64, p >.05$ . 이처럼 암묵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 연령, 인종에 따른 암묵적 태도

연령과 인종에 따라 암묵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 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연령층별로 인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단변량  $F$  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 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평균 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한 결 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33, ; M_{\text{흑인선호}}=-.32, ; M_{\text{동남아인선호}}=-.31$ ).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에는 종속변수인 암묵적 태도 측정치들의 평균벡 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512)=7.14, p<.01$ . 종속치들에 대한 짝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 국인과 대비하여 선호도가 백인, 동남아인 > 흑인

표 1. 연령대별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인종 암묵적 태도	인종			단변량 <i>F</i>	pairwise comparisons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i>M</i> ( <i>SD</i> )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i>M</i> ( <i>SD</i> )	동남아인선호 (동남아인 vs 한국인) <i>M</i> ( <i>SD</i> )		
초등 1학년	-.33 (.40)	-.32 (.38)	-.31 (.39)	.02 (2, 512)	a=b=c
초등 4학년	-.29 (.41)	-.46 (.40)	-.28 (.41)	7.14** (2, 512)	a = c > b
중학생	-.24 (.44)	-.37 (.44)	-.34 (.42)	3.48 <sup>o</sup> (2, 512)	a > c, b
고등학생	-.28 (.47)	-.42 (.41)	-.44 (.41)	7.62*** (2, 512)	a > b, c
대학생	-.25 (.44)	-.51 (.41)	-.55 (.39)	20.03*** (2, 512)	a > b, c

a=백인선호, b=흑인선호, c=동남아인

\*  $p < .05$ , \*\*  $p < .01$ , \*\*\* $p < .001$

순이었다. 특히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과 대비하여 백인,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았다( $M_{\text{백인선호}} = -.29$ ;  $M_{\text{동남아인선호}} = -.28$ ). 중학생의 경우에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 = 3.48$ ,  $p < .05$ ,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 동남아인, 흑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고등학생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 = 7.62$ ,  $p < .001$ ,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 흑인, 동남아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 = 20.03$ ,  $p < .001$ ,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 흑인, 동남아인 순이었다.

### 인종에 따른 암묵적 태도

인종별로 암묵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

표 2.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점수

측정치	학년	암묵적 태도 <i>M</i> ( <i>SD</i> )	명시적 태도 <i>M</i> ( <i>SD</i> )
백인 선호 (백인 vs 한국인)	초등 1학년	-.32 (.40)	-1.5 (1.9)
	초등 4학년	-.29 (.41)	-.61 (2.3)
	중학생	-.24 (.44)	-.80 (2.2)
	고등학생	-.28 (.47)	-.69 (2.1)
	대학생	-.25 (.44)	-.57 (1.9)
흑인 선호 (흑인 vs 한국인)	초등 1학년	-.32 (.38)	-1.96 (1.8)
	초등 4학년	-.46 (.40)	-1.65 (2.0)
	중학생	-.37 (.44)	-1.52 (1.9)
	고등학생	-.42 (.41)	-1.54 (1.9)
	대학생	-.51 (.41)	-1.48 (1.8)
동남아인 선호 (동남아인 vs 한국인)	초등 1학년	-.32 (.38)	-1.64 (1.9)
	초등 4학년	-.28 (.41)	-1.67 (1.8)
	중학생	-.34 (.42)	-2.05 (1.3)
	고등학생	-.44 (.41)	-1.70 (1.6)
	대학생	-.55 (.39)	-1.1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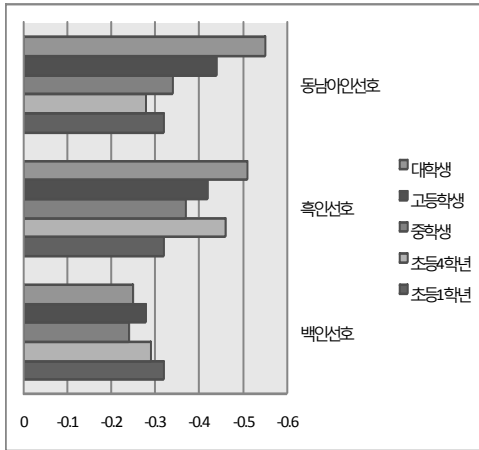


그림 1.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간에 contrast를 실시하였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각 인종별 암묵적 태도 점수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내집단인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외집단들에 대한 선호도보다 모두 높았다. 외집단 중에서는 백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였다( $M_{\text{백인인종}} = -.28$ ;  $M_{\text{흑인인종}} = -.42$ ;  $M_{\text{동남아인종}} = -.39$ ). 그 다음으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과 대조하여 흑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외집단 간에 구분이 이뤄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성인기에 가장 비선호적 태도가 두드러졌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중학교 이후부터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른 명시적 태도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라 명시적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변인인 연령, 성별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의 3원 혼합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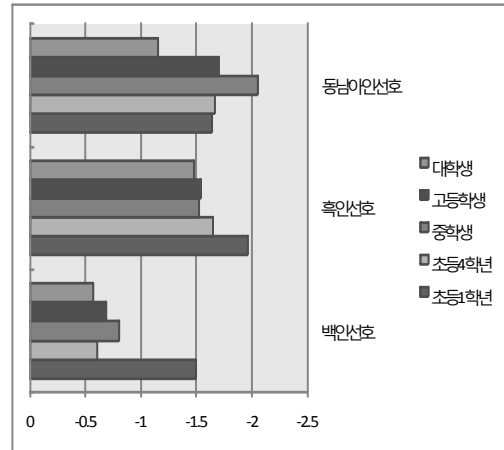


그림 2.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sphericity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으나 epsilon이 .95로 1에 근접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집단 내 변인인 인종에 따라서 종속변수 측정치인 명시적 태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616) = 51.62, p < .001$ . 또한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연령에 따라 종속변수 측정치인 명시적 태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8, 1234) = 3.72, p < .001$ . 그러나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성별에 따른 명시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616) = 1.71, p > .05$ . 아울러 인종과 연령,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명시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8, 1234) = 1.86, p > .05$ . 이처럼 명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연령, 인종에 따른 명시적 태도

연령과 인종에 따라 종속변수인 명시적 태도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 3. 연령대별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명시적 태도 \ 인종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i>M (SD)</i>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i>M (SD)</i>	동남아인선호 (동남아인 vs 한국인) <i>M (SD)</i>	단변량 <i>F</i>	pairwise comparisons
초등 1학년	-1.5 (1.9)	-1.96 (1.8)	-1.64 (1.9)	2.53 (2, 616)	a=b=c
초등 4학년	-.61 (2.3)	-1.65 (2.0)	-1.67 (1.8)	16.81*** (2, 616)	a > b, c
중학생	-.80 (2.2)	-1.52 (1.9)	-2.05 (1.3)	24.21*** (2, 616)	a > b, c
고등학생	-.69 (2.1)	-1.54 (1.9)	-1.70 (1.6)	16.39*** (2, 616)	a > b, c
대학생	-.57 (1.9)	-1.48 (1.8)	-1.15 (1.8)	9.48*** (2, 616)	a > c, b

a=백인선호, b=흑인선호, c=동남아인  
\*  $p < .05$ , \*\*  $p < .01$ , \*\*\* $p < .001$

각 연령층 별로 인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변량  $F$ 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의 평균 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는 위의 표 3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1.5$ ;  $M_{\text{흑인선호}}=-1.96$ ;  $M_{\text{동남아인선호}}=-1.64$ ,  $p>.05$ ).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명시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616)=16.81$ ,  $p<.001$ . 종속치들에 대한 사후검사로써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흑인, 동남아인선호도 순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616)=24.21$ ,  $p<.001$ ,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흑인, 동남아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암묵적 수준에서 중학생들의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흑인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명시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은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616)=16.39$ ,  $p<.001$ . 고등학생의 경우,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616)=9.48$ ,  $p<.001$ ,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동남아인, 흑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특히 한국인과 대조하여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가 흑인에 대한 선호도보다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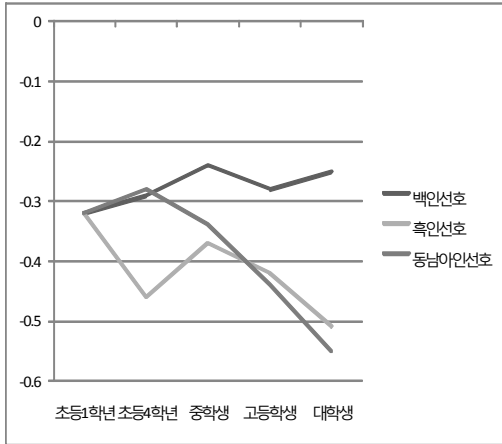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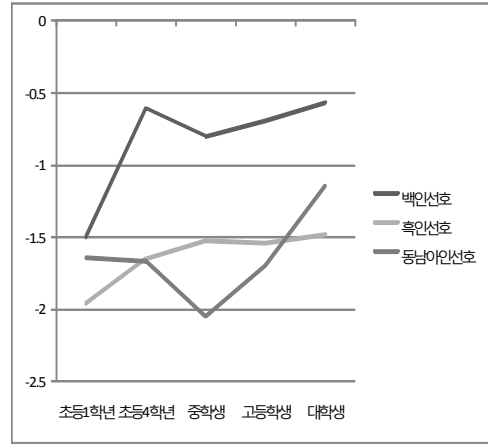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 인종에 따른 명시적 태도

인종별로 명시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 백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간에 contrast를 실시하였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각 인종별 명시적 태도 점수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내집단인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연령과 관계없이 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보다 모두 높았다. 외집단 중에서는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였다( $M_{\text{백인선호}} = -.85$ ;  $M_{\text{흑인선호}} = -1.65$ ;  $M_{\text{동남아인선호}} = -1.67$ ). 그 다음으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인종별 명시적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인과 비교하여 백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때 백인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흑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흑인 비선호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동남아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중학생 때

가장 비선호적이었다가 다시 성인기에는 명시적 수준에서 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연령별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 차이 비교

각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일학년(6세)의 경우에는 한국인에 대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10세)의 경우에는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암묵적 수준의 선호도는 백인선호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명시적 수준에서는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중학생인 경우에는 암묵적 수준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흑인선호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명시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즉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의식적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러한 태도가 암묵적 수

준에서는 아직 덜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생인 경우, 백인 >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우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다. 즉 암묵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아져 편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상승하여 암묵적인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비대칭적으로 큰 불일치를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의 사회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암묵적/명시적 태도를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 인종 범주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인종에 대한 태도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전 연령에 걸쳐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경향은 초등학교 일학년에서부터 매우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해왔던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6세)의 경우 내

집단에 대한 선호경향은 뚜렷했지만, 외집단 간에 선호도나 편견적 태도는 암묵적과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및 일본의 만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Dunham et al., 2006), 6세 미국 및 일본아동들이 외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의 고저에 따른 구분 없이 인종에 대해 미분화된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만 6세 아동일 경우에는 내집단선호경향은 나타나지만 외집단 간에는 아직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편견적 태도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6세 아동의 경우 명시적 수준에서 백인선호/흑인비선호 경향이 약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탈편견 다문화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계화 시대에 좀 더 부합되는 열린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10세)에 이르러 인종범주에 따른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는 저학년과 매우 다르게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즉 10세 아동들의 경우, 외집단 간의 선호/비선호적 태도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백인선호 경향과 흑인을 비선호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외집단 중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는 암묵적인 수준에서 비선호적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백인선호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흑인과 유사한 정도의 비선호적 태도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10세)의 경우 외집단 중 동남아인에 대해서 비선호적인 편견적 태도가 아직 암묵적 수준으로까지는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암묵적 태도 이론에 따르면, Dunham 등(2006)은 초등학교 4학년(10세) 전후로 인종에 대한 명시

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시기에 1학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외집단 중에서 백인선호/흑인비선호하는 태도가 암묵적/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수준에서 비선호적 태도가 나타나는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는 비선호적 태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아서,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암묵적 수준에서 아직 내재화되지 않아서 암묵적/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암묵적 태도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세 아동의 경우 암묵적/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로, 중학교 시기에는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명시적 수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고등학교,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인 암묵적 태도가 흑인에 대한 비선호적인 태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암묵적인 수준에서 백인선호경향과 흑인 및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인 편견적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암묵적인 태도발달에 관한 이론은 암묵적 태도가 서서히 습득되는 체제로 보는 서행 학습 모델(slow learning model)과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 일생에 걸쳐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는 초기 습득 모델로 나눌 수 있다(Dunham, Baron & Banaji, 2008). 본 연구결과, 한국인의 내집단 선호는 생애 초기에 습득되어 그 이후에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초기 습득 모델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외집단들에 대해 형성되는 사회적 태도는 생애 초

기에 습득되는 것이라기보다 연령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점을 암묵적 수준으로 점차 내재화 시키면서 형성되는 서행 학습 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암묵적 태도발달의 형성은 내집단/외집단, 외집단의 인종범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Dunham 등(2006)은 미국인과 타인종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적은 일본인 집단에서 모두 내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발달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난 점을 토대로, 내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선호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인지적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그 집단의 지위(prestige)가 암묵적 태도 형성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된 외집단은 Dunham 등(2006)의 연구와는 달리 백인과 흑인 뿐만 아니라 동남아인을 포함하여 모두 세 집단이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면서 과거 서구 선호 사상 뿐만 아니라 동남아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태도는 좀 더 늦은 중학교시기에 내재화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사회에 동남아인들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선호적이고 편견적 태도가 중학교 시기 이후로 암묵적 수준에까지 내재화되기 시작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나가기 위해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연령층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다섯째, 고등학교 시기에는 백인선호와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Baron과 Banaji(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 백인 아동들이 10세를 기점으로

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와 명시적인 태도의 평균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즉, 10세부터 명시적인 태도는 점점 더 평등주의적으로 되었으나 암묵적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명시적 수준에서 감추기 보다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Dunham 등, 2006) 결과와도 유사하다. 일본 아동들은 미국 아동들에 비해 명시적 수준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좀 더 스스럼없이 표현하였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른 인종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노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편견적 태도를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압력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다른 인종과의 사회적 접촉이나 노출경험 여부가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대학생의 경우에는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서 암묵적/명시적 태도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암묵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비선호적이었음에도 명시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가장 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내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생 연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흑인/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편견적 태도가 암묵적 수준에서 더욱 증가하는데 반해 명시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해서 오히려 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태도는 대학생층에 이르러 연령 증가와 함께 동남아인

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일 뿐 암묵적으로는 비수용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집단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 입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종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는 인종에 대한 편향(bias)이 성별보다는 연령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인종이라는 사회범주를 중심으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발달에 관한 이론화(theorizing)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태도 발달에 대한 연구임에도 종단적 방법이 아닌 횡단적인 비교 분석을 했다. 본 연구주제가 시대적 상황에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횡단적 방법을 사용한 발달 연구이더라도 시대상황적 변화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종단적 연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묵적 태도 검사에 비해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명시적 선호도 검사가 명시적인 태도를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좀 더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인종적인 변인만을 고려하였으며 인종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각 인종 집단에 대한 문화적 지위(cultural prestige)나 각 인종과의 사회적 접촉 또는 노출경험 여부가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발달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도 고려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 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Aboud, F. (1988). *Children & Prejudice*. Oxford: Basil Blackwell.
- Aronson, E., Wilson, T.D., & Akert, M. (2005). *Social Psychology*, Fif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 Baron, A. S. & Banaji, M. R. (2006). The Development of Implicit Attitudes: Evidence of race evaluations from 6, 10, and adulthood. *Psychological Science*, 17(1), 53-58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Cunningham, W. A. (2004). Seperable neural components in the processing of black and white faces. *Psychological Science*, 82, 62-68.
- Dovidio, J.E. Kawakami, K & Gaertnerz S L..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62-68.
- Doyle, A. B., Beaudet, J., & Aboud, F. E. (1988).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flexibility of children's ethnic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18.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6). From American City to Japanese Village: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implicit rac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 1268-1281.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8). The development of implicit intergroup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2, 248-253.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1.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A., Uhlmann, E.,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Lo Coco, A. Inguglia, C. & Pace, U. (2005).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ety*. Dipartimento di Psicologia, Universita degli Studi si Palermo, Italy.

- NeSdale, A. R. (2000).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thnic preferences and social cogni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1-519.
- Olson, J. M., Goffin, R. D., & Haynes, G. A. (2007). Relative versus absolute measures of explicit attitude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diverse attitude-relevant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907-926.
- Phelps, E. A. Kevin J. Cunningham, William A, Funayama, E. Sumie, Gatenby, J. Christopher, Gore, John C., Banaji, Mahzarin R. (2000). Performance on indirect measures of race evaluation predicts amygdala activ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2*(5), 729-738.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 Boston: Mcgraw-Hill,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c Blackwell.
- Vaughan, G. M (1987).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J. S. Phinney & M. J. Rotheram (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73-91*.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Williams, J. E., & Morland, J. K. (1976). *Race, color and the young child*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1차 원고 접수: 2010.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7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8

# The Development of Implicit and Ex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 in the Multi-cultural Age

**Hee-Jung Bang      Kyung-Ran Row      Soo-Ji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differ according to age and sex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Koreans. Elementary school students(first grade:117, fourth grade:117), middle school students(138), high school students(138), and college school students(122) completed Implicit Association Tests (Korean-White/Korean-Black/ Korean-Southeast Asian IATs), and Explicit Preference Test. The effects of age and sex on and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Korean/White/Black/Southeast Asian were examined with 5(age)× 2(sex)× 3(race) three-way MANOVA. using mixed model.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 continued throughout the age, without sex effect. In contrast, out-group preference/bias presented different developmental asp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licit or explicit, age and ra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attitude development, implicit, explicit, attitude, Korean*